

<특별기고>

신인조화의 이해

鄭大珍*

目 次

I. 머리말	2. 신인부조화(神人不調化)의 현상
II. 대순사상에서의 신과 인간	IV.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념
1. 대순사상에서의 신	1. 인존(人尊)의 사상
2.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2. 확고한 윤리도덕관의 정립
3. 신과 인간의 상호연관성	3.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
III. 신인조화(神人調化)의 필요성	V. 맺음말
1. 상극적현실과 윤리도덕의 타락	

I. 머리말

종지(宗旨)란 그 종교가 표방하는 중심사상을 뜻한다. 기존의 기성종교가 갖추고 있는 사상체계도 모두 종지를 통해서 도출되어 나온 것이며 그 지향하는 바도 종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성종교의 종지를 살펴볼 때 그것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배경은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원리에 지배된 선천(先天)세상이며 나아가 그 종교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살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교의 인사상(仁思想)이나 불교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박애(博愛)사상 등은 모두 인류로 하여

* 대진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금 남을 내 몸처럼 여겨 부족한 재화를 서로 싸우지 않고 나눠 먹게하므로써 공생공존(共生共存)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종교에서 강조하는 공생운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처해 있는 제한된 환경, 즉 부족한 재화와 자원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그 효용을 누리게끔 계도(啓導)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참고 살아가는 것이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섞여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극에 지배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현실의 환경은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이상 종교적 가르침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선천의 상극적 원리에 지배된 세상에서는 제한된 환경하에서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한 쪽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상대는 원망을 가지게 되고 그 원망이 쌓여서 결국은 서로가 해를 입게되는 불상사가 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누가 특별히 망치려고 들지 않더라도 저절로 인간세상은 파멸로 치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冤)의 점철(點綴)로 인한 인류의 진멸지경(盡滅地境)'인 것이다. 대순진리는 이렇게 상극으로 인해서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신사상(新思想)으로서 출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릇 대순진리는 이 천지의 주인이신 구천상제(九天上帝)의 강세에서부터 비롯된다. 기성종교의 가르침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神明계(神明界)에서부터 역대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이 상제가 계신 구천에 하소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천상제께서는 직접 인세(人世)에 강세하시게 되었다. 강세하신 구천상제께서는 9년간의 천지공사로 인해 인류에게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셨으며 이는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새로운 천지'로서 인류에게 베풀어지게 되었다. 이 때 후천은 선천과는 그 지배원리부터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다.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바른도수와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의하여 상생(相生)의 무한한 풍요로움이 약속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떠한 원율과 번뇌도 없으며 서로 미워하거나 악한 사람이 없이 그저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지상천국이다. 즉 상제께서는 잘못된 천지도수를 고르게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므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적 환경

을 그 근본에서 부터 뜯어 고쳤으며, 환경이 바뀌어지므로서 인간의 마음도 절로 바뀌어 이상세계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는 구천상제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어떤 역대의 종교가도 행하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역사(役事)라고 하겠다. 이에 대순진리의 종지는 바로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후천세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세계를 이루는 근본원리 그리고 이를 실천 생활해 나가는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순진리의 종지는 총 16자인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며, 이는 모두 후천세상을 주도하는 이념으로 표방된다. 이 가운데서 필자는 앞서 음양합덕(陰陽合德)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니와 그것은 후천세계의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는 근본원리임을 밝혔다. 즉 음양합덕은 천지가 인류에게 무한한 혜택을 베풀어주며 오직 선(善)하고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지게끔 하는 풍요의 이념이다. 상극적 요소라고는 아예 없이 천지의 덕(德)으로서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도 무한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신천지(新天地)의 새로운 환경을 설명하는 말로써 여타 신인조화와 해원상생 그리고 도통진경이 될 수 있는 원 바탕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본고에서는 대순종지에 있어서 또하나 중요한 사상이 되는 신인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이는 음양합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음양합덕이 되므로써 신인조화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신인조화에서는 특히 종교적 대상인 신은 어떠한 존재이며 인간은 또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가 주목되며, 나아가 신과 인간이 상호 조화되어 이루는 새로운 모습은 어떠한가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특히 이 신인조화를 엄격한 윤리도덕 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하며, 그것이 곧 인류가 소망하는 종교적 이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양합덕의 바탕위에서 신인조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음양합덕의 이해만큼이나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신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신인조화의 필요성 나아가 신인조화가 지향하는 이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대순사상에서의 신(神)과 인간(人間)

1. 대순사상에서의 신

흔히 신(神)이라고 하면 인간을 초월해 있고 인간이상의 힘을 지닌 존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양의 종교에서 신은 인격을 지니며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것으로 세계와 인류를 주관하는 절대자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인간은 결코 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신관은 중세에 인간의 사회를 폐쇄적이고 고립된 것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아울러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은 그 사회를 암흑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관에 대한 반동으로서 근대에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가 강조되게 되면 무신론(無神論)의 경향을 띄게 되어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어떤 경우에라도 서양의 신관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에게 아주 의지하던지 아니면 아예 신을 무시하든지 극단적인 경향으로 치달아와서 오늘날 바람직한 신관(神觀)을 정립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동양종교에서의 신은 주로 그 초월적인 면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인간의 생활전반에 걸쳐 관여하면서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의 존재가 막연해져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지니며 그 올바른 개념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 신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신인조화의 설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신의 개념은 동양적 입장에서 있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신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전경』에서 신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 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과 같이 써 붙이셨도다. ...부도생략 (교운 1장 19절)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교법 1장 50절)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교법 3장 2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 (교법 2장 17절)

윗 글을 참조해 보면 대순사상에서의 신이란 결코 인간 이상의 힘을 지닌 것도 아니며 인간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인간세계와 접촉되어 있으면서 오직 진리에 입각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다는 것은 천지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신과 결합되어서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은 인간이 죽어서 변화된 것으로 인간의 역사를 떠나서는 신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살펴볼 때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의 개념은 천지 사물 하나하나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하는 주 기관(機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물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진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은 특정 사물 하나하나를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하나의 사물에 깃들여 있는 신은 오직 그 사물에 대해서만이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것이므로 고정 불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등에 각각의 신이 있으며 땅의 산과 들과 바다와 나무등에도 모두 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사람에게도 그 사람 하나하나를 호위하는 신이 있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만유(萬有)가 다 신이 있어 그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주 큰 신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작은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세계에서 위계 질서가 있듯이 신의 세계에서도 그 위계 질서가 갖추어져 아주 엄격한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명이 천지에 가득차 있고 진리에 지극하다는 것은 바로 이상(以上)의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진리란 그 자체로 완전해야 하며 사사물물(事事物物)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야 하며 요지부동의 고정 불변한 것임을 말해주므로 신이 바로 그러한 진리 자체인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신은 인간사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전 우주에 가득차 있는 진리성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인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인간은 주로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옛날부터 신에게 빌어오고 신에게 의지해 왔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신보다 나약하고 유한(有限)하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신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태도에서부터 기인하였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결코 신보다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은 신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신의 가치를 알고 그 이상적 진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에 있으며, 이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마음(心)이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며 인간의 생각을 일으키며 행동을 주관하는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신(神)을 담은 그릇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전경』에 보면

마음이란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 행록 3장 44절)

라고 하였다. 이 때의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를 깨달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야 하며 옳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신을 가려서 수용하는 것 이라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 하자면 다양한 신을 받아들여서 그 선하고 악한 것을 가린 뒤 선을 지향하 고 선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자 할 때는 마음에 선한 신이 응하여 그대로 이루게끔 해주는 것이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또 마음에 악한 신이 응하여 그대로 이뤄지게끔 해주는 것이니 인간의 자율의지가 선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신의 존재와 관 련해서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몸을 닦으며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 리며 천하를 평안히 한다.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 걸이 악하였던 것도 그 때이며 탕이 선하였던 것도 그 때이다. 천도(天 道)는 걸을 악에서 가르쳤으며 탕을 선에서 가르쳤다. 걸이 망하고 탕이 흥하였던 것은 이윤에게 달려 있었다.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爲天下者不顧家事 桀惡其時也 湯善其時也 天道教桀於惡 天道教湯於善 桀之亡湯之興在伊尹」(공사 3장 39절)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천도 즉 신(神)의 도(道) 본래 선과 악이 다 들어 있으며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악한 신이 응하여 계속 악을 자행하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 으며,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면 또 선한 신이 응하여 오로지 선한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걸은 그 마음의 악함이 그대로 악한 신을 불러들였 으며 탕은 또 그 마음의 선함이 선한 신만을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렇게 양분된 모습에서 이윤은 그 자신의 마음에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니, 따라서 걸은 망하고 탕은 흥 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바로 다름아닌 인 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천하를 평안히 하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인 간의 본질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

대순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존(人尊)'이라는 말로서

표현되어진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교법 2장 56절)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인존은 천존과 지존에 대비되는 말로서 그 궁극적 가치는 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즉 천존이란 신의 존재가 ‘하늘’이라는 영역에 머물면서 그 역사(役事)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존이란 신의 존재가 땅이라는 영역에 머물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인존이라고 하게 되면 신의 존재가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써 인간의 가치가 최고도로 실현되는 상태가 된다. 여기에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존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그러한 신이 응할 수 있게끔 바르게 다스리고 수양해 나가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존이 되면 신은 오로지 사람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가 되며 따라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바라는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해준다.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일월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시 21절) 이라고 하였듯이 대순사상에서는 천지와 더불어 인간이 지니는 가치가 그만큼 위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신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3. 신과 인간의 상호연관성

대순사상의 음양합덕(陰陽合德)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볼 때 신과 인간의 관계도 음과 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므로 음이라고 하면 인간은 육체를 지니는 것으로 양이 된다. 이 때의 음과 양은 서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일에 있어서건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간사의 모든 일이 신과의 관련하에 있으며 신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아주 세세한 개인의 일에서부터 국가와 국가간의 일까지 신의 일이 인간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일이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먼

저 신계(神界)의 일이 인간계(人間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전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상제께서 전주 김 준찬(金俊贊)의 집에 가셔서 김 덕찬(金德贊)·김 준찬(金俊贊)·김 낙범(金落範)들과 좌석을 함께 하시다가 가라사대 「근자에 관묘(關廟)에 치성이 있느냐」고 하시기에 낙범이 있음을 아뢰었도다. 이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그 신명이 이 지방에 있지 않고 멀리 서양(西洋)에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나니라」고 알리셨도다.(행록 4장 11절)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 형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시 25절)

위의 구절은 신명이 먼저 움직여서 인간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이다. 즉 그 신이 움직이므로서 인간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계의 예기치 않은 일은 모두 그 일을 일으키는 신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 신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이다.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교법 1장 25절)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교법 1장 49절)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교법 1장 54절)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 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갇나니라.(교법 2장 44절)

위의 구절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즉 음식을 먹는데서부터 인간 상호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때 그 행위의 결과는 신계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따라서 인간의 인사(人事)가 결정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은 신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대순사상의 신과 인간의 상호연관성속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의 기준은 신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신과 인간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인사(人事)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전경구절에서도 보면 천상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싸움이 결정된다고 하였으니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천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신의 세계에서부터 해결되므로서 인사는 그에 따라 절로 해결되게 된다.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감세하시어 행하신 천지공사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 사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보자.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 1장 3절)

즉 천지공사에서 '신도로부터 원을 푼다'는 것은 신의 세계가 근원이 되므로 이를 먼저 해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신의 질서인 천지도수가 고르게

되고 평화가 정착되므로써 인간세상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세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난 후에 인간세계도 이와 아울러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니 대순사상에서 신과 인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Ⅲ. 신인조화(神人調化)의 필요성

1. 상극적 현실과 윤리도덕의 타락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상극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는 바람에 생겨난 참혹한 현상을 말한다.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상호 대립하고 투쟁하게 하여 억울한 원한으로 얼룩진 갈등의 역사이며, 선악이 공존하면서 그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려 선한 자가 화를 입기도 하고 악한 자가 복을 받기도 하여 선·악이 전도(顛倒)된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천하고 악한 자는 버림을 받아 항상 역사의 뒤안길에서 소외되기가 일쑤였으며 반대로 악하고 힘센 자는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닥치는 대로 살육을 자행하면서 역사무대의 전면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혹 선하고 의로운 자가 세력을 얻었다하더라도 주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곧 음해(陰害)를 입고마니 그 원망과 원망이 꼬리를 물어 이 세계가 진멸(盡滅)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상극적 현실과 관련하여 나타난 두드러진 폐단의 하나로 윤리도덕의 부재현상(不在現象)을 들 수 있다. 자식이 아버지를 해하며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며 부부간의 도리를 저버리며 임금과 신하간의 의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의 버리가 되며(君爲臣綱),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며(父爲子綱), 지아비는 지어미의 버리가 된다는 것이다.(夫爲婦綱) 이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사이의 신의의 버리(信義之綱)이며,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양생의 버리(養生之綱)이고, 지아비와 지어미사이의 화락의 버리(和樂)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윤리적 실천으로서 아버지와

자식간에 친함이 있어야 하며(父子有親), 임금과 신하간에 의리가 있어야 하고(君臣有義), 부부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하며(夫婦有別), 어른과 아이간에 차례가 있어야 하며(長幼有序), 친구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는 것인데 이러한 전통적 윤리관념이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조류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나가야만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종교성이 타락해버린데서 그 큰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주로 신에 대한 외경(畏敬)과 섬김의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인간행위를 규찰하고 감독하며 상선벌악(賞善罰惡;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줌)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나아가 인류가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이상적 차원을 가름하는 기관으로서 신관념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신의 위엄이며 신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신의 위엄과는 상반되게 인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만행을 자행하므로써 모든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종교인들마저도 그 종교활동이 영리적으로 변모되어 신도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비리를 저지른 내용이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종교인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저변의 원리가 바로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상호극해(相互剋害)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잘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누르고 해쳐야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원리는 선천의 인류를 지배해왔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원(冤)으로 얼룩진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윤리도덕도 상극적인 윤리이며 상극적인 도덕이므로 그 결과는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것을 정당화하게끔 만들었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목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뿔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11절)

즉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본래 성인(聖人)이 하늘로 부터 받아내려서 인류에게 가르친 것인데 묵은 하늘과 묵은 땅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다. 이른바 상극을 보편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윤리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묵은 하늘을 뜯어 고치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가 필수불가결하게 대두된다. 이는 상극의 세상을 상생의 세상으로 만드는 신천지의 창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의 방법론으로서는 먼저 가치의 근원인 신도(神道)로부터 도수를 바로잡아 인간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 1장 3절)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도(神道)가 인사의 근원이 되므로 신도에서부터 모든 원을 풀게 되면 인사(人事)가 저절로 이룩된다는 것이다. 신도가 바로 잡혀서 인사를 주재하게 되면 인간은 불의를 저지를 수도 없게 되고 신과 인간은 새로운 상생의 관계로서 상생의 윤리도덕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신과 인간이 새로운 관계로서 만나 그 근본이 하나로 되는 신인합본(神人合本)의 경지를 이룩하게 되니 이것이 곧 신인합일(神人合一)이요,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사상이라고 하겠다.

2. 신인부조화(神人不調化)의 현상

선천의 상극적 현실에서는 그만큼 신(神)의 존엄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욕망만이 강조됨으로서 사회는 무질서화되고 종교는 타락하게 된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로서 신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하다고 여기는 신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둘째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외경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교적으로 호를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존 종교가 수없이 많은 갈래를 뺏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삶을 고루 다스리지는 못하였다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인간의 종교성에 바탕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던 것이며 그러한 신과 인간이 만나 이루어 내는 이상적 경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신은 그 나름의 질서와 체계가 있으며 인간은 또한 인간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신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되는 관계라든지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의 자율적인 사고만을 존중한다든지 하여 신과 인간의 극단적인 관계가 노정(露呈)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종교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신의 종이 되면 인간의 사고는 폐쇄되어 어떠한 문명의 발전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신을 무시하게 되면 윤리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인륜이 무너지게 된다. 서양의 종교는 오늘날 신을 무시함으로 인해 문명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윤리 도덕적으로는 전혀 기강을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윤리의 황폐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신인부조화(神人不調化)의 현상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한편 동양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윤리를 숭상한다하지만 신에 대한 관념이 강조되기보다는 인간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서양문명에 오염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동양도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바른 신관(神觀)의 정

립과 신과 인간의 조화(調化)된 모습을 상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앞서 대순사상에서의 신의 개념은 인간이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진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은 그 진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때 신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또한 신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신인상함(神人相含)의 관계에서 올바른 종교의 위상이 드러나게 된다. 즉 신과 인간은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요구되고 있으니 먼저 그것은 상제의 천지공사에 따른 신권(神權)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속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30절)

이 때 신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권위에 인간이 복종하는 주종관계에서의 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인사를 결정하고 질서체계를 확보하는 기관으로서의 신권을 말한다.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고 불의를 속청하며 의로운 자를 도와 복을 내리는 것은 신권이 제대로 기능하는 후천의 시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때는 신의 위엄에 의해 감히 불의를 자행하지 못하여 그 이상적인 신의 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되게 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교법 3장 34절)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강륜(綱倫)이 무너진 선천 세상에 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강륜이 확고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신의

위엄이 드러나서 감히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엄격한 기관이 서야 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신에 대한 의존도 아니며 신에 대한 무시도 아닌 신의 질서가 인간세계에 이룩되는 것을 말하며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서와 같이 신과 인간의 조화(調化)를 통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모습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신은 음, 인간은 양이므로 후천의 음양합덕이 되면 신과 인간도 서로 합본(合本) 합덕(合德)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천지만물이 음양아닌 것이 없는데 구천상제께서 음양합덕의 원리로 신천지(新天地)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음양이 서로 합덕하여 새로운 생육(生育)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과 인간도 합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천지공사의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곧 신인조화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조화(調化)라는 개념은 조화(調和)라고 할 때의 ‘고를 조’자(字)와 조화(造化)라고 할 때의 ‘될 화’자(字)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고르다’는 개념은 모두가 동등 동권하게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된다’는 것은 제각각이 자기 한도대로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과 인간의 상대적 관계가 절대세계에서 만나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경』에 보면

또 상제께서 말씀올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제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라고 하여 도통은 닦은 바대로 누구나 통하게 되는 것으로써 어떠한 원도 남기지 않는 고르게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 때 도통은 신과 인간의 합일적(合一的) 만남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하는 도인(道人)들에게 있어서는 도통이 곧 수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에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교운 1장 41절)라고 하였듯이 도통은 어느 특정 분야의 도통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선이나 부처도 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며 음양합덕으로 인한 신인조화가 되므로써 신인(神人) 진인(眞人)이 무한정 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덕(德)은 생(生)하고 기르는(育)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상생(相生)은 상덕(相德)도 되며 이러한 상생상덕을 이루어 내는 것이 곧 음양합덕이다. 정음(正陰)과 정양(正陽)으로서의 음양이 합덕되므로써 신인도 합본하여 무한한 도통 군자가 양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종교적 욕구도 충족되며 스스로 어떤 원망도 없는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되니 곧 신과 인간의 조화(調化)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화(調化)란 모두가 일정한 모습을 가지게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 사물이 제각기의 한도(限度)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도대로 신(神)으로 짝짝 채워져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경지를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과 인간이 만나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전경에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평터이니 각자의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교법 2장 54절)고 한 것처럼 각자의 기국에 꼭 맞는 결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완성된 새로운 개체가 제각각이 모여서 하나의 큰 질서와 체계를 이루게되니 곧 신의 질서요 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신인조화는 오늘날 신인이 부조화(不調化)된 상태에서 빚어지는 모든 종교적 부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종교적 이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

IV.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념

1. 인존(人尊)의 사상

신인조화의 사상이 지향하는 이념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 첫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존(人尊)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과 인간은 본래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인존이라고 하면 인간의 가치가 진리로서의 신에 꼭 부합되어서 자신이 지닌 한도대로 신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신인합본(神人合本)의 경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도통(道通)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인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고루 고루 도통이 된 경지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모두 신인조화된 도통의 경지에서 성장하게 된다. 신의 세계에서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있어 이러한 신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게 해 주는 것이니 사람도 그 신이 아니면 그 자체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존이란 사람이 신과 부합되어서 갖추게 되는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말한다고 하겠다.

한편 인존의 의미와 관련하여 '존(尊)'자가 가지는 개념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는 반드시 신적인 대상을 상징하는 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존귀하다'는 뜻보다는 고대로부터 인간이 숭배해왔던 신적인 대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자화상으로 보면 그 글자의 본래 의미는 '술그릇' 또는 '고대에 제사지낼 때 쓰던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다. 즉 제사의 대상은 신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데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존경하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등의 뜻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다른 개념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천존(天尊)'과 '지존(地尊)'을 들 수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

라' (교법 2장 56절)

이 때 천존이란 말하자면 그 신이 하늘(天)이라고 하는 영역에 집을 정하고 머물면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 사물이 하늘을 향해 공경을 표시하고 제사를 지내왔던 역사를 의미한다. 지존은 또한 신이 땅(地)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사람으로부터의 제사와 공경을 받아왔던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인존시대라'고 한 것은 인간이 곧 신이 머무는 집이 된다는 것이며 그 모든 신의 권위와 능력도 인간에 의해서 행사되어 질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숭배의 대상도 천·지에서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천지가 담당해왔다고 생각했던 우주역사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어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때의 인간은 그야말로 모든 존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신의 권위를 행사하므로써 천지만물이 오직 인간을 위해 그 혜택을 베풀어 주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는 후천선경의 실상이며 음양합덕의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그리하여 막연히 높은 하늘을 숭상하고 이름있는 땅을 찾아가기 보다는 신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 얻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이다.

금산사 청련암(靑蓮庵)의 중 김 현찬(金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후 그는 환속하여 화축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 병욱(金秉旭)이 또한 명당을 바라므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주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행록 1장 37절)

흔히 명당이라고 하면 지존(地尊)의 가치를 숭상하여 이름있는 땅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믿음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상제의 천지공사는 후천의 인존시대를 여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름있는 명당은 땅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아야 함을 일러주시고 있다. 따라서 좋은 땅을 얻기 보다는 사람을 한사람 얻는 것이 진정한 명당을 얻는 것임을 자각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이 머무는 집으로서의 ‘인존’을 말하는 것이다.

인존시대에는 현재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그 인간에 응한 신의 조화(造化)에 의해 다 이룩될 수 있다.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이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집이며 주인인 인간은 그 신으로부터 떠받들어지는 가치를 지니게 되니 인간의 행사범위는 무궁무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의 지혜가 밝아져 시방세계에 두루 통달하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응한 신이 그렇게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다. 선천세상에서는 일부 사람만이 지혜를 얻어 하나의 종교적 경지를 이룩하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과학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는 등 특성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특별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신의 힘을 빌려 하나의 계시와도 같은 형식으로 각성을 이루었던 것을 말한다. 과학문명의 발달도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원형으로서의 신의 작용을 특정한 사람이 받아내린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인조화(神人調化)된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의 지혜에 통달해 있는 것이며 따로 계시의 작용이 필요치 않아도 전부 다 대 종교가이며 대 과학자이다. 전경을 보면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

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신안(神眼)이 열리면 누구나 신명을 볼 수 있어서 그 지혜가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소망도 신인조화의 시대에는 모두 다 이룩될 수 있다. ‘서양의 문명이기는 모두 천국의 것을 본딴 것’(공사 1장 35절)이라

고 하였으니 천국은 다름아닌 신의 세계로서 인류가 지향해왔던 이상세계의 원형이다. 이 때 신인이 조화되므로서 천국의 문명이 인간세계에 건설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입는 것은 다름아닌 인존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 ‘후천에는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장생을 얻으며 귀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고 하고,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장 22절)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인이 조화되어 이룩하는 새로운 세상은 오직 인간이 귀해지고 그 신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서 신에 의해 인간이 떠받들어지는 후천의 지상낙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인조화된 세상의 주체는 바로 다름아닌 인간이며 그것은 현실적 존재로서 신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천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순사상에서 인존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며 신인조화의 이념적 표상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신명(神明)을 거느리면서 신명의 조화(造化)를 부린다는 것은 신인조화에 의해 비교할 데 없는 인존사상(人尊思想)이 실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2. 확고한 윤리도덕관의 정립

신인조화의 사상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념으로서 확고한 윤리도덕관의 정립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천의 현실에서 윤리도덕이 타락한 원인은 다름아닌 신을 무시하는데서 부터 발생한 것이며, 또한 선천의 윤리도덕이란 묵은 하늘이 만들어 낸 것이라서 오늘날과 같은 원(冤)으로 점철된 참혹한 현실이 빚어지게 되었다. 제자가 스승을 해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며 신하가 임금을 해치는 것등은 상극세상에서 생겨난 윤리도덕관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인이 조화된 세상에서는 이러한 윤리도덕은 새롭게 정립된다. 즉 후천은 신이 인간을 집으로 삼아 합본(合本)이 되어서 이루는 세계이므로 신의 질서와 체계가 그대로 인간세상에 베풀어지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누구를 감히 속인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확

고한 신의 질서에 어긋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말한다. 공자의 논어(論語)에도 보면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인간사어 천청약뢰 암실기심 신목여전(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와 같으며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의 감시와 수찰이 아주 엄격해서 감히 속일 수가 없고 어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신인조화의 시대란 바로 이것이 보편화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지속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때다. 따라서 어떠한 사곡(私曲)함도 행해질 수 없고 아주 엄격한 윤리도덕이 세워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은 신명 시대나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즉 신명시대으로써 표현되는 후천은 신과 인간이 조화되어 인사의 모든 일이 신도(神道)의 권위로서 행해지는 세상이다. 따라서 아주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신이 개입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또한 이를 감독하고 수찰하면서 오로지 바른 것만을 지켜나가게 된다.(太細細天地鬼神垂察; 공사 3장 40절)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지언정 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과 불의가 없는 세상, 밝고 투명한 세계가 이룩된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교법 3장 4절)

신명시대에 신의 위엄을 발휘하는 것은 그 신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나쁜 마음과 잘못된 체질을 고쳐준다는데 있다. 모든 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신명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살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남에게 척을 짓게 되면 원한을 품은 신이 곧 그 사람을 찾아서 보복하게 되니 오로지 바른 것만을 지켜나가는 신명시대에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명시대에 처하여 사람이 수양해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데서부터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수양과정에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신명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 나쁜 마음을 뜯어고치게 된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은 신인조화와 관련된 주요한 실천방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인조화의 이념이 확고한 윤리도덕관의 정립이라는 점에서 대순사상에서의 신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것은 신이 가치의 근원이 되며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신 보다는 하나의 선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미로서 밝을 명(明)자를 더한 '신명(神明)'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신명이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잣대가 되며 담당하는 기관이 되어 인간의 진실과 사곡됨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다. 『전경』에는 이러한 신명의 작용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먹줄과도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

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34절)

즉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명은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고 사곡된 것을 번갯불과도 같이 가려낸다는 것이다. 이럴 때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된 것을 행하는 자는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게 되니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다. 따라서 선천에서 볼 수 있었던 하극상(下剋上)의 현상은 신인조화에 이르게 되면 감히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지 못하며 또한 새로운 강륜(綱倫)이 나타나서 신명의 수찰에 의한 엄격한 윤리 질서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새로운 강륜의 하나로써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이다. 스승은 제자를 애홀 지도하고 제자는 스승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조(以詔:가르쳐 인도함)의 강(綱)이 서게 되며 삼강 오륜에 더하여 그 윤리의 체계가 새롭게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순사상에서 신인조화의 이념은 인간의 일거일동에 있어 신명의 작용이 불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신명과 인간이 조화(調和)되고 조화(造化)하여 윤리도덕이 확고하게 정립된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3.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

신인의도(神人依導)란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과 인간이 서로 의탁하며 이끌어주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말이다. 대순종지의 음양합덕 원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과 인간은 서로 음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음으로서의 신이 양으로서의 인간과 만나 그 덕을 합하는데서 부터 모든 조화가 이루어져 나올 수 있으며, 이 때 신과 인간은 그 관계에서 이상적인 만남을 전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경』에 나오는 「음양경(陰陽經)」의 내용을 참조해보기로 한다.

신은 사람이 뒤에 없으면 의탁하여 기댈 곳이 없으며, 사람은 신이 앞에 없으면 이끌어 줄 곳이 없다. 신과 인간이 화목하여 만사가 이루어지며

신과 인간이 합하여 백가지의 공이 이루어진다. 신명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리니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한 이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 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人俟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 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교운 2장 42절)

윗 글에서 보면 신은 사람에게 의탁하여 그 일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곧 사람이 없으면 신의 가치가 공허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신이 있으므로 해서 올바르게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아는 것이며, 그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때 신은 사람을 앞에서 이끌어 준다고 하였으니 인류문화의 궁극적 가치는 신의 문화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이 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사곡된 짓을 행하게 되니 그 이상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권(神權)으로서 인간세상에 베풀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이 가치를 주도하고 그 본원이 되며 인간세상을 살피나가는 것이 신인의도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인의도에 있어서 신명도 사람이 아니면 의탁할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인존시대에 사람이야말로 신명이 머무는 집이기 때문이다. 신명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고쳐쓰게 되니 신명의 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존재가 곧 사람이다. 그리하여 신인조화의 시대에는 또한 신명이 제각기 자기가 머무를 집을 찾아 사람을 구하게 되며 이렇게 만난 사람과 합본(合本)이 되면서 그 자신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제께서 박 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뇨.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 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42절)

천지신명의 운수자리라는 것은 곧 신명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말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명이 머무를 만한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 그리하여 각 가정과 각 사람을 드나들면서 그 기국을 시험하여 신명의 집을 정하는 것이니 이러한 신명이 응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신인조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겠다. 하나의 신이 하나의 사람과 만나는 것은 음양합덕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원리와의 같으며 이렇게 신과 사람이 합한 이후에 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명이 응하게 되므로서 인간세상은 비로소 신명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인간의 의식주(衣食住)도 신명의 조화로서 베풀어지게 된다.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교법 3장 44절)

인간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니 인간을 위해서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무한한 풍요가 약속되는 것이 또한 신인조화의 이념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다름아닌 신인의 도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신이 사람에게 의탁하여 베풀어지는 하나의 크나큰 성과(成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인의도에 있어서 신은 사람에게 의탁하고 인간은 신을 지향하여 나아가므로서 신인조화의 이념은 그 실제적인 달성을 보게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오늘날 종교적 타락과 윤리도덕의 회복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념으로 등장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종

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학계에서나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교가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난립된 현상만 가중시킬 때에는 오히려 종교가 사회혼란의 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종교간의 대화와 그 자체의 각성도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류가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이상적인 종교 이해는 대순사상의 종지에 포함되어 있는 신인조화의 이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몰락되어버린 윤리도덕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져 나가는 사회는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계약된 법으로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상극의 원리에 지배된 선천세상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상호제재만을 가하게 되므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지 침해와 타락을 일삼게 된다. 이러한 타락의 이면에는 신을 무시하기도 하고 인간의 욕구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인이 조화된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인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고는 신과 인간의 본질적인 개념에서부터 그 관계, 나아가 신인조화의 필요성과 그 이념을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신인조화의 이해에 있어서는 오늘날 만연해 있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관념에서부터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아울러 인간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하겠다. 신의 권위에 의해서 인간세상의 윤리적 질서가 유지되며 신의 조화에 의해서 인간생활의 무한한 풍족함이 약속되는 그러한 풍요와 화합의 세계, 이는 오직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